

〈규문슈지여행지도(閨門須知女行之圖)〉 연구

임치균*

— <차 례> —

1. 서론
2. <규문슈지여행지도>의 제작과 전승
3. <규문슈지여행지도>의 구성과 놀이 방법
4. 결론

〈국문초록〉


<규문슈지여행지도(閨門須知女行之圖), 이하 여행도>는 인현왕후가 폐서인이 되어 사제에 있을 때 제작하여, 사랑하는 이복동생 민 씨에게 전해준 놀이판이다. 관직을 주제로 한 남자들의 <승경도(陞卿圖)>와는 달리, <여행도>는 조선 여성들이 해야 할 행실과 본받아야 할 인물을 주제로 하고 있다. <여행도>를 전해 받은 민 씨는 이장휘(李長輝)에게 시집간 인물이다. 현재 전하고 있는 <여행도>는 민 씨의 현손 이옥(李鈺)이 다시 베껴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행도>는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은 놀이판을 둘러싸고 있는 맨 아래 줄로, 악녀(惡女)와 악행(惡行)으로 가득 차 있다. 두 번째 부분은 맨 아래 줄에서 한 줄 안으로 들어온 곳으로, 여성들이 지켜야 할 행실로 이루어져 있다. 세 번째 부분은 그 안쪽으로 세로 7칸, 가로 5칸에 걸쳐 뛰어난 여성 32명의 이름과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태임(太任)’이다. ‘여편네 중 성인이라’는 설명이 있는 이 곳은 놀이가 끝나는 곳이다.

<여행도>는 맨 아랫줄 중간에 있는 ‘스(肆), 위(僞), 지(才), 행(行), 경(敬), 성(誠)’에서 시작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이 놀이는 각 면에 ‘스(肆), 위(僞), 지(才), 행(行), 경(敬), 성(誠)’이 새겨져 있는 육면체의 주사위 [윤목(輪木)] 를 가지고

*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각 칸에는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글자에 따라 움직여 가야 하는 곳이 적혀 있다. 이러한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성으로서 해야 할 일과 말아야 할 일, 본받아야 할 여인과 그러지 말아야 할 여인의 행적을 받아들이고 체득하게 된다.

 <규문슈지여행지도>, 인현왕후, 민 씨, 놀이판, <승경도>, 이옥

1. 서론

조선 사람들은 일종의 주사위 놀이를 하곤 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승경도(陞卿圖)>¹⁾이다. <승경도>는 현실 관직을 그림으로 표시한 후, 주사위 등을 던져 나오는 대로 움직이는 놀이이다. 남성들은 이러한 놀이를 통하여 관직 경쟁에서 생길 수 있는 삶의 긴장을 느끼거나²⁾, 관직명을 외우고 기억하였을 것이다.³⁾ <승경도>의 역사는 오래되었고⁴⁾, 그에 따라 지금까지 다양한 놀이판이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되는 놀이판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규문슈지여행지도(閩門須知女行之圖), 이하 여행도>이다. ‘여성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덕과 행실을 그린 그림’이라는 제목의 놀이판에는, 여성으로서 반드시 행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행실, 본받거나 본받지 말아야 할 인물들이 담겨 있다. <여행도>에는 한문과 한글로 행실이나 여성 인물이 적혀 있고, 그 행실과 여성 인물에 대한 해석과 설명이 곁들여 있다.

1) 종경도(從卿圖), 승정도(陞政圖), 종정도(從政圖) 등으로도 불린다.

2) 최봉영, 『놀이문화와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한국문화와 한국인』, 사계절, 1998, 50쪽.

3) 최상수, 『한국 민속 놀이의 연구』, 성문각, 1988, 245쪽.

4) 김봉수, 『<승경도(陞卿圖)>를 중심으로 한 초등 역사학습 방안』, 『역사교육연구』, 한국역사교육학회, 제14호, 2011에 문헌 기록 정리가 잘 되어 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소장품번호 : 구 7204)에 소장되어 있는 <여행도>는 김일근이 발굴하여 소개한 매우 귀중한 자료로, 발견 당시 신문에 소개될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⁵⁾ 김일근의 노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17세기 말에 완성된, 여행(女行)을 주제로 하는 놀이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행도>는 인현왕후가 만들어 전한 것이라고 한다. 그 사실은 <여행도> 안에 있는 필사기에 기술되고 있다. 우선은 이 기술의 진실성 여부를 분명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회박하기는 하겠지만 누군가가 인현왕후에 가탁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사 인현왕후가 <여행도>를 만들었다고 해도, 언제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전해주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현손이 등출하였다는 임자년(壬子年)에 대한 비정도 정확하지 않다. 구성이나 놀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여행도>에 들어 있는 내용에 대한 검토와 이해도 없었다.

결국 <여행도>와 관련한 정보는 여전히 드러난 것이 거의 없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의 유일한 놀이판이면서 동시에 교육적 효능을 우선시 한 독특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격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무척 아쉬웠다.

이는 아마도 <여행도>를 뒷받침 할 어떤 문헌이나 기록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러던 차에 필자는 <여행도>와 관련된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였다. 그곳에는 <여행도>에 대한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

본고는 새롭게 발견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은 <여행도>에 관한 여러 사실들을 밝혀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놀이판의 구

5) 김일근, 「한글판 여행도(女行圖)를 찾았다 - '규문수지여행지도(閨門須知女行之圖)' 발굴-」, 『중앙일보』, 1981.10.9.

성이나, 놀이 방법에 대해서도 추론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여행도>의 내용을 탈초하고 주석을 달아 부록으로 첨부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규문수지여행지도>의 제작과 전승

<여행도>는 인현왕후 민 씨(1667-1701)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인현왕후가 폐비 되었다가(1689) 복위하는(1694) 5년 사이이며, 인현왕후는 환궁할 때에 이 <여행도>를 배접하여 놓고 마치 나를 보듯이 하라고 당부하였다고 한다.⁶⁾

이러한 주장은 <여행도>의 중간에 적혀있는 필사기에 근거하고 있다. 김일근은 필사기를 다음과 같이 탈초하고 있다.

녀형도는 인현황후 수쓰시도(手寫是圖) 교계아선고조모민씨(敎誡我先高祖母閔氏) 특이시도총혜(特以是圖寵惠) 약왈(若曰) 숙여상유(淑女常遊) 노이좌우(老而左右) 금낭상나(襟囊常裡) 부이시도(附以是圖) 용체별후안면(用替別後顏面)호노라.

신희(辛亥) 문충공 신 민진원(文忠公 臣 閔鎮遠) 호 단암(號 丹巖) 필운(筆云)니라.

남즈초하(壬子初夏) 현손모등출(玄孫某騰出)⁷⁾

여기서 김일근의 해석을 보자.

6) 이상의 주장은 김일근, 『규문수지여행지도의 공개와 의의』, 『조선여인의 삶과 문화』, 서울역사박물관, 2002, 175쪽.

7) 김일근(2002), 위의 책, 175쪽. 본래 문단이 나뉘어 있지 않으나,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필자가 나누었다.

여행도(女行圖)는 인현왕후가 손수 만들어서 나의 고조모 민씨를 가르치고 경계하였는데, 특별이 이 여행도를 소중히 여겨 이르기를 ‘숙녀가 항상 놀 때나 늙어서도 좌우에 두며 늘 주머니 속에 넣어둘 만하다. 이 도를 두껍게 배접하여 두었다가 내가 입궁(入宮)한 후에 내 얼굴을 대신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신해년(1731, 영조 7년)에 文忠公 號 丹巖 閔鎮遠이 기록했다고 전한다. 임자년(1732 또는 1792) 초여름 현손모 옮겨 적음⁸⁾

그런데 이 가운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 먼저 탈초 부분에서 필자가 짙게 표시하여 가로 누인 글씨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숙여상유’와 ‘금당상니’는 ‘숙녀상슈’, ‘금당상니’의 오독이다. 또한 ‘특이시도총혜 약왈’은 ‘특이시도’, ‘총혜약왈’로 나누어야 한다. 필사기에 끊어지는 부분에 분명하게 점을 쳐두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필사 과정에서 오기가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문제가 없는 부분까지 임의로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될 경우, 한자 병기에도 당연히 오류가 생기게 되고, 그에 따라 내용 해석도 달라지는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한 번 꼼꼼히 따져 보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자가 생각하는 한자를 병기하겠다.

녀행도(女行圖)는 인현왕후(仁顯王后) 슈스시도(手寫是圖) 교계(教戒) 아선(我先) 고도모민씨(高祖母閔氏) 특이시도(特貽是圖) 총혜약왈(寵惠若曰) “숙녀상슈(淑女常守) 노이좌우(老而左右) 금당상니(今當相離) 부이시도(付以是圖) 용체별후(用遞別後) 안면(顔面)”⁹⁾호노라.

신희(辛亥) 문충공(文忠公) 신(臣) 민진원(閔鎮遠) 호(號) 단암(丹巖) 필운(筆云)니라.

남즈(任子) 초하(初夏) 현손(玄孫) 모(某) 등출(騰出)

8) 김일근(2002), 앞의 책, 175쪽.

이에 따른 해석은 다음과 같다.

여행도는 인현왕후께서 손수 이 여행도를 그리시어, 우리 돌아가신 고조모 민 씨를 교육하고 경계하셨다. 특별히 이 여행도를 주시면서 은혜롭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숙녀로서 항상 지니고 있고, 늙어서도 곁에 두어라. 이제 이별하게 되어 이 여행도를 주노라. 이로써 이별 후에 얼굴 보는 것으로 대신하여라.”

신해년에 호가 단암인 문충공 신 민진원이 썼다고 한다.

임자년 초여름에 현손 아무개가 베끼어 냈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위의 필사기를 분석해보면

- 1) 인현왕후는 손수 만든 <여행도>를 현손의 고조모 민 씨와 이별할 때 주었다.
- 2) 현손의 고조모는 이별 후 <여행도>를 인현왕후 대하듯이 하였다.
- 3) 고조모 민 씨의 현손은 임자년에 <여행도>를 다시 베끼어 내었다.

이때, 네 가지 의문이 든다.

첫째, 정말 인현왕후가 <여행도>를 만들었을까? 가락은 아닐까?

둘째, 인현왕후가 <여행도>를 만들었다면 그것을 받은, 현손의 고조모는 누구일까?

셋째, 여기서 말하는 이별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일까?

넷째, 현손은 누구이며, 임자년은 언제일까?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의 기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의 고모 이유인(李孺人)은 여흥(驪興) 민씨(閔氏)이다. 여양부원군(驪陽府院君) 문정공(文貞公) 유중(維重)의 따님이고, 관찰사 광훈(光勳)의 손녀이며, 부윤(府尹) 기(機)의 증손녀이다. 모친은 풍창부부인(豐昌府夫人) 조씨(趙氏)이고, 외조부는 성균 생원(成均生員) 귀중(貴中)이다. 성균 진사(成均進士) 장휘(長輝)의 아내가 되었는데, 장휘는 참판(參判) 선(選)의 셋째 아들이고, 완남부원군(完南府院君) 충정공(忠貞公) 후원(厚源)의 손자이다.

숙종 무오년(1678, 숙종4) 10월 3일에 태어난 고모는 성품이 온화하고 공손하고 단정하고 조용하며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항상 어른 곁에 있으면서 언문(諺文)을 배우고 길쌈을 익혔다.

기사년(1689, 숙종15)에 인현성모(仁顯聖母)께서 사제(私第)에 물러나 있을 때에 가까운 친척들도 감히 왕래하지 못해 매우 적적하였으며, 곁에 모시던 자들 중에는 심지어 울면서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유인은 홀로 지겨워하는 모습이 없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으니, 성모께서 매우 사랑하여 친히 <여행도(女行圖)> 를 써주고 또 옛날의 어진 여인들의 성명을 적어서 하사해주었다.⁹⁾(괄호 안 연도, 및 밑줄은 필자. 이하 같음)

이 기록은 1799년 출간된 민우수(閔遇洙 1694-1756)의 『정암집(貞菴集)』에 실려 있다. 민우수는 인현왕후의 오빠인 민진후(閔鎭厚 1659-1720)의 아들이다.

우선 『정암집(貞菴集)』에서 말하는 <여행도>와 <규문슈지여행지도>

9) 我姑母李孺人 驪興 閔氏 驪陽府院君 文貞公諱維重之女 觀察使諱光勳之孫 府尹諱機之曾孫 母 豐昌府夫人 趙氏 外祖 成均生員 貴中 嫁爲成均進士諱長輝之妻 參判諱選之第三子 完南府院君 忠貞公諱厚源之孫 以肅廟戊午十月三日生 姿性溫恭端靜 不喜游嬉 常在長者側 學諺字 習縫紉 己巳 仁顯聖母遜于私第 至親不敢往來 窮寂甚 侍傍者至或涕泣求出 而孺人獨無倦色 不發思歸之言 聖母甚愛之 親寫《女行圖》 又籍記古賢媛姓名以賜之(閔遇洙, 『貞菴集』, <姑母孺人閔氏墓誌>). 『정암집』은 “고전번역원 db”에서 찾을 수 있었다. 번역은 고전번역원의 것을 참고하되, 필요할 경우 필자가 보완하였다.

가¹⁰⁾ 동일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인현왕후가 매우 좋아하여 <여행도>를 주었고, 어진 부인들의 성명을 적어서 하사하였다’는 구문이 눈에 띈다. ‘인현왕후가 매우 좋아하였다’는 내용은 현전하는 <규문슈지여행지도>에도 적혀 있다. 또한 <규문슈지여행지도>의 중앙 부분에는 뛰어난 여인 32명의 이름과 행적이 적혀 있다. 게다가 민우수가 인현왕후의 집안사람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기록에서 언급한 <여행도>와 <규문슈지여행지도>는 동일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정암집』의 기록은 <여행도>가 인현왕후에 의하여 제작되어 이유인(李孺人)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유인은 민우수의 고모로, 이장휘(李長輝 1681-?)에게 시집간 민 씨이다. 이장휘의 처 민 씨는 인현왕후와는 이복 자매인데, 민유중의 세 번째 부인인 조 씨의 소생이다.

그렇다면 <여행도>에서 말하는 이별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을까? 가능성은 두 가지이다.

첫째, 인현왕후가 사제에서 풀려나 궁으로 돌아갈 때.

둘째, 이복동생인 민 씨가 이장휘에게 시집갈 때.

인현왕후는 1689년에서 1694년까지 사제에 유폐되었다.

왕비 민씨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으며, 임금이 비망기를 내렸다.

“내가 양조의 폐비할 때의 일을 보니, 윤 씨가 잘못된 비는 단지 투기에 있었는데, 죄상이 이미 드러나자 성종께서 종사를 위해 깊이 근심하고 먼 앞날을

10) 『貞菴集』에 있는 <여행도>와 구분하기 위하여 이 문단에서만 원 제목을 쓰도록 하였다.

생각하시어 결단하여 폐출하셨다. 허물며 지금의 민 씨는 허물을 지고 범한 것이 윤 씨보다 지나치고, 윤 씨가 하지 않았던 행동까지 겸하여 선왕과 선비의 하교를 지어 내어 종사에 죄를 얻었음에야! 예관으로 하여금 민 씨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아 사제로 돌려보내고, 종묘에 고하며 교서를 반포하게 하라. 그 부모의 봉작을 빼앗는 등의 일은 예전의 예에 따라 속히 거행하라.”¹¹⁾

『정암집』에는 ‘이별’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정암집』의 기록으로 보면, 인현왕후가 사제(私第)에 있을 때, 민 씨는 힘을 여하지 않고 언니인 인현왕후의 곁을 지키며 ‘사귀(思歸)’의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인현왕후가 사랑하여 <여행도>를 주었다고 한 후에 『정암집』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술이 이어진다.

이 씨 가문으로 시집가니 인척들이 모두 귀하고 성대하였으나, 성품이 검소한 것을 좋아하는 유인은 화려함으로 높이려는 뜻이 전혀 없었다.¹²⁾

『정암집』의 기록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민 씨의 혼인이 인현왕후가 사제에 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다. 물론 민 씨가 언제 혼인하였는지는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가 없다. 인현왕후가 궁으로 돌아간 1694년에 민 씨의 나이는 17세이다. 17세기-19세기까지의 혼인 연령 평균이 남자 16.23세, 여자 17.38세라는 점¹³⁾을 감안한다면 혼인

11) 廢王妃閔氏爲庶人時 上下備忘記曰 予觀兩朝廢妃時故事 尹氏所失 只在妬忌 而罪狀既著 則成廟爲宗社深憂遠慮 斷然廢黜 況今日閔氏負犯 浮於尹氏而兼之以尹氏所無之行 做出先王先后之教 得罪於宗社者乎 其令禮官 廢爲庶人 歸之私第 告廟頒教 奪其父母封爵等事 一依舊例 卽速舉行(『肅宗實錄』 15年 5月 丁酉).

12) 及歸李氏 姻戚皆貴盛 而孺人性喜儉約 絕無華麗相高之意(閔遇洙, 『貞菴集』, <姑母孺人閔氏墓誌>).

13) 박희진, 『양반의 혼인연령 : 1535-1945』 - 혼서를 중심으로-, 『경제사학』 40권, 경제

하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선(李選 : 민 씨의 시아버지) 집안에서 폐서인(廢庶人)된 죄인의 집안과 굳이 혼인을 하였을지 의문이다.

혹시 인현왕후가 폐서인이 되기 전에 민 씨가 이장휘가 혼인한 것은 아닐까? 인현왕후가 폐서인이 된 1689년에 이장휘는 우리 나이로 9살이고, 민 씨는 12살이다. 부부가 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이다.

따라서 인현왕후가 복위한 후에 민 씨가 이장휘와 혼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할 때, 이별은 인현왕후가 복위하여 궁으로 돌아가는 때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민 씨는 <여행도>를 단순한 놀이판으로만 여기지 않았다.

유인은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영화와 몰락, 슬픔과 기쁨을 겪은 것이 많았으나, 부인으로서의 덕을 조금도 잃지 않았으니, 인현성모께서 그림과 책자를 내려준 뜻을 저버리지 않은 것이다.¹⁴⁾

<여행도>에서 인현왕후가 ‘숙녀상수(淑女常守) 노이좌우(老而左右)’ 하라고 한 말을 민 씨가 그대로 지킨 것이다. 민 씨는 인현왕후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그 속에 남긴 의미까지 터득하고 실천하였다. <여행도>가 본래 목적에 맞게 제대로 활용되었다고 하겠다.

<여행도>를 베끼어 낸 사람은 민 씨의 현손(玄孫)이다. 과연 이 현손은 누구일까? 그리고 등출한 임자년은 언제일까?

인현왕후가 만든 <여행도>는 무척 소중한 유물이기에, 일단 장자 중심으로 전해졌다고 보는 것이 순리이다. 민 씨와 이장휘의 장자인 이윤(李

사학회, 2006, 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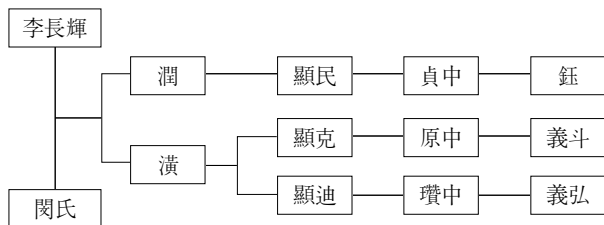
14) 孺人自幼至老 其榮落悲歡 所經歷多矣 於婦人之德 未或違失 蓋不負聖母圖記之錫(閔遇洙, 『貞菴集』, <姑母孺人閔氏墓誌>).

潤)으로 이어지는 현손은 이옥(李錡)이다. 『전주이씨광평대군파세보(全州李氏廣平大君派世譜)』¹⁵⁾에 따르면, 이옥은 정조辛亥(1791)에 태어나 을해(乙亥)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을해는 1815년과 1875년이다. 이옥을 등출한 인물로 볼 경우, <여행도>에 기록되어 있는 임자년을 1792년으로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옥이 우리 나이로 2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장휘의 둘째 아들인 이황(李潢) 쪽 인물일 수도 있기에 선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다. 실제로 『정암집』의 저자 민우수(閔遇洙)에게 민 씨의 묘지명을 부탁한 사람도 이황(李潢)이다.¹⁶⁾ 그렇기에 이황 쪽 민 씨의 현손인 이의두(李義斗)와 이의홍(李義弘)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의두는 순조 임술(壬戌 1802)에, 이의홍은 현종 병신(丙申 1836)에 태어났다. 따라서 이들 현손 또한 1792년에는 <여행도>를 등출해낼 수 없다.

이제 다시 이옥이 죽은 ‘을해’에 대하여 따져보자. 이옥은 네 명의 아들을 두었다. 족보에 따르면 첫째 이조연(李肇淵)과 둘째 이교연(李教淵)은 1810년, 1813년에 두었다. 그런데 셋째 이경연(李敬淵)은 순조 경진년(庚辰年)인 1820년, 넷째 이민연(李敏淵)은 순조 계미년(癸未年)인 1823년에 두었다. 그렇다면 이옥이 죽은 ‘을해’는 1875년이다. 그리고 민 씨의

15) 『全州李氏廣平大君派世譜』 권3, 宗會, 1977, 9-59쪽.



16) <姑母孺人閔氏墓誌>에 “이제 이황이 묘지를 부탁하니, 비록 질병으로 위태로이 연명하고 있어 글을 지을 수가 없으나 알고 있는 것을 이와 같이 대략 쓴다(今潢托以幽堂之誌 雖疾病危綴 不堪作文字 而略書所知如此云)”는 구절이 있다.

또 다른 현손인 이의두는 신묘년인 1891년에, 이의홍은 갑인년인 1914년에 세상을 떠났다.

이러한 모든 근거를 바탕으로 할 때, 민 씨의 현손인 이옥, 이의두, 이의홍 모두 <여행도>를 등출하였을 수 있다. 다만 인현왕후가 내려준 귀중한 자료인 <여행도>는 장자 중심으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필자는 <여행도>를 베낀 현손을 이옥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라 현손이 베껴내었다는 임자년은 1852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¹⁷⁾

3. <규문슈지여형지도>의 구성과 놀이 방법

<여행도>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놀이판을 둘러싸고 있는 곳으로, 악녀(惡女)와 악행(惡行)으로 가득 차 있다. 예를 들어 ‘짐승’, ‘아버이를 꾸짖던 김아(金娥)’, ‘술을 좋아하여 술 한 동이에 종 하나를 바꾼 이씨(李氏)’, ‘불효(不孝)’, ‘탐면(貪眠)’ 등과 같은 부정적인 행위와 인물들이 48가지가 있다.

두 번째 부분은 둘러싸고 있는 곳에서 한 줄 들어온 곳으로, 여성들이 지켜야 할 행실로 이루어져 있다. ‘치가(治家)’, ‘경부(敬夫)’, ‘홀하(恤下)’, ‘간묵(簡默)’, ‘청검(淸儉)’ 등과 같은 것이 왼쪽, 오른쪽 두 번째 줄과 아랫부분 2, 3, 4줄에 걸쳐 30가지가 적혀 있다.

세 번째 부분은 그 안쪽으로 세로 7칸, 가로 5칸에 걸쳐 뛰어난 여성의 이름과 행적이 드러나 있다. 아버를 물어 가는 호랑이를 친 ‘양향(楊香)’에서부터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재가를 시키려는 부모를 향하여 자기 귀

17) <여행도>에 표기된 한글을 보면, 기주(기주), 방적(방적), 훈팍(훈팍), 던천(던천), 티가(치가), 흠미라(하미라), 년지(연지) 등이 같이 쓰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고찰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와 코를 자른 ‘범씨(范氏)’, 공자님이 예를 안다고 칭찬한 ‘경강(敬姜)’에 이르기까지 총 32명이 등장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지식(智識)’, ‘현명(賢明)’, ‘지도(知道)’가 들어 있다. 행실과는 다른 범주이기에 달리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이 있고, 현명하며 도를 아는 여성이라야 뛰어난 여성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지도(知道)에 대한 설명에서 알 수 있다.

지도(知道)난 도리(道理)를 안다 허난 말이니 도리난 사람의 하울 어진 일이라. 도리를 진실로 아나¹⁸⁾ 의심(疑心)이 업스면 명인(名人)이 되난 길희 드러 가리라.

도를 알아야 명인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생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태임(太任)’이다. ‘여편네 중 성인이라’는 설명이 있는 이곳에서 놀이는 끝이 난다. 결국 <여행도>는 놀이를 진행하면서 점점 놀이판의 안쪽으로 들어가야만 긍정적인 행실과 인물을 접하게 되고, 마침내 ‘태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여행도>는 맨 아랫줄 중간에 있는 ‘스(肆), 위(僞), 지(才), 행(行), 경(敬), 성(誠)’에서 시작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이 놀이는 육면체의 주사위 [윤목(輪木)] 를 가지고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각 면에는 ‘스(肆), 위(僞), 지(才), 행(行), 경(敬), 성(誠)’ 가운데 하나를 새겼을 것이다. 이는 <승경도(陞卿圖)>의 예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¹⁹⁾ 주사위를 던져서 ‘스(肆)’가 새겨진 면이 나왔을 때, 그곳을 보

18) ‘아래’의 오기로 보임.

19) 김봉수(2011), 앞의 논문.

면 ‘악녀(惡女)’라고 적혀 있다. 즉 처음에 던져 ‘스’가 나오면 그 사람의 말은 바로 위 칸의 ‘악녀’로 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위(僞)가 나오면 ‘할녀(黠女)’, 지(才)가 나오면 ‘지녀(才女)’, 행(行)이 나오면 ‘정녀(貞女)’, 경(敬)이 나오면 ‘현녀(賢女)’, 성(誠)이 나오면 ‘성녀(聖女)’²⁰로 간다²¹). 그리고 차례로 던져서 나오는 대로, 그곳에서 가리키는 곳으로 말을 옮기는 것이다.

그런데, ‘악녀, 지녀, 현녀, 정녀, 할녀’에는 ‘스(肆), 위(僞), 지(才), 행(行), 경(敬), 성(誠)’이 모두 표기되어 있지만, 그 옆에 있는 ‘음영(吟詠)’을 보면 ‘지’가 없다. 다른 곳 대부분에서도 이렇다. 이 경우, 만약 주사위를 던져서 ‘지’가 나오면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 번 쉬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가운데 ‘태임(太任)’ 아래에서부터 ‘지도(知道)’까지는 ‘성, 경, 스’ 또는 ‘성, 경’만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오른쪽 ‘현명(賢明)’에서부터 위로 ‘반첩여(班婕妤)’까지도 ‘행, 지’ 또는 ‘행, 지, 위’가 없다. 또한 왼쪽에 있는 ‘고행(高行), 공강(恭姜), 장손모(臧孫母)’의 경우도 ‘행, 지, 위’ 또는 ‘행, 지’가 없다. 태임(太任)’에 가까워질수록 쉬어야 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만큼 이동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러한 난관을 뚫고 맨 위에 있는 ‘태임(太任)’에 올라야만 놀이가 끝난다.

예를 들어 처음에 ‘성’이 나오면 ‘성녀’로 가고, 그곳에서 다시 ‘성’이 나오면 ‘정씨(程氏)’로, 그곳에서 다시 ‘성’이 나오면 ‘맹모(孟母)’로, 그곳에서 다시 ‘성’이 나오면 ‘태임(太任)’으로 가게 되어 놀이에서 이기게 된다.

20) <여행도>의 ‘정녀’는 ‘성녀’의 오키이다.

21) 물론, 현대에는 그냥 주사위로 하여 몇 점을 ‘스(肆), 위(僞), 지(才), 행(行), 경(敬), 성(誠)’으로 할지 정하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1점을 ‘스’, 2점을 ‘위’로 하여 차례로 6점까지 정할 수도 있고, 1점을 ‘성’, 2점을 ‘경’으로 하여 거꾸로 차례를 정하여 놀이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속 네 번 ‘성’이 나올 확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게임은 끝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여행도에는 ‘악녀(惡女), 지녀(才女), 현녀(賢女), 덕녀(貞女), 할녀(黠女), 성녀(聖女), 티가(治家), 슈행(修行), 변통(辯通), 절의(節義), 안빈(安貧), 효순(孝順), 지식(知識), 현명(賢明)’ 등 총 14곳에만 특별하게 【 〇 】 문양이 보인다. 이 가운데 ‘악녀(惡女), 지녀(才女), 현녀(賢女), 덕녀(貞女), 할녀(黠女), 성녀(聖女)’는 주사위를 처음 던져 가는 곳이다. 흥미로운 것은 ‘티가(治家), 슈행(修行), 변통(辯通), 절의(節義), 안빈(安貧), 효순(孝順), 지식(知識), 현명(賢明)’이다. ‘티가(治家)’ 위에는 손님 대접 잘하는 접빈(接賓), 마을 사람과 잘 사귀는 교린(交隣), 아랫사람을 어여뻐 여기는 홀하(恤下), 남편을 공경하는 경부(敬夫), 제사를 조심하여 정성으로 하는 근제(謹祭), 아들을 잘 가르치는 교자(教子), 형제 간 사랑하는 우애(友愛), 친족들과 화목한 목족(睦族)이 놓여 있다. 이들 모두가 집안 다스리는 일과 관련이 있음을 고려할 때, 문양은 ‘티가(治家)’가 대표 항목이라는 점을 표시한 듯하다. 이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다. ‘슈행(修行)’에는 마음이 부드러운 화유(和柔), 모든 일에 조심하고 삼가는 심신(審慎), 행동을 천천히 하고 말이 없는 간묵(簡默), 공순한 공순(恭順), 청렴하고 검박한 청검(清儉), 단정하고 정다운 단장(端莊), 마음이 정하여 잡됨이 없는 순일(純一), 여러 법도를 지키는 수례(守禮)가 있다. 말을 이치에 맞게 한다는 뜻인 ‘변통(辯通)’에는 그에 걸맞은 인물들이 놓여 있다. 말을 옳게 하여 죄를 면한 필힐모(佛盼母), 말을 잘하여 죄를 입게 된 아버지를 구한 연지(涓之), 임금에게 말을 하여 나라를 편하게 한 우희(虞姬)가 그들이다. ‘절의(節義)’에는 범에 물려가는 남편을 구한 김시(金氏), 거울을 매개로 헤어진 남편을 기다렸다가 만난 설시(薛氏), 남편이 멀리 나가자 머리를 묶었다가 돌아오자 비로소 풀 동시(董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 곳을 거치는 동안, 놀이에 참여한 여성들은 나쁜 행위와 태도, 현숙한 행동, 바른 생각인 칸을 거치게 되고, 배제해야 할 악한 여성이나 본받을 만한 선한 여성들의 행적을 접하게 된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여성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익히게 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맨 아랫부분 쪽 끝에는 금수(禽獸) [짐승] 가 적혀 있다. 이 부분은 놀이의 시작점이 아니라 퇴출되는 부분이다. 금수 [짐승] 칸에 어떤 표시도 없는 것이 그 증거이다. 더 이상 주사위를 던질 수 없는 부분이다. 인간이 짐승이 되었으니 더 무엇이 필요할까? 만약 ‘금수’ 칸에 가더라도 다시 놀이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그 참가자는 처음부터 시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결론

<여행도>는 인현왕후가 폐서인이 되어 사체에 있을 때 제작하여, 궁으로 복귀하면서 사랑하는 이복동생 민 씨에게 전해준 놀이판이다. 이복동생은 이장휘(李長輝 1681-?)에게 시집간 민 씨이다. 민 씨는 인현왕후의 아버지 민유중의 세 번째 부인인 조 씨의 소생이다. ‘서로 이별할 때를 맞아’라는 것으로 보아, 구체적으로는 인현왕후가 다시 궁으로 돌아갔던 1694년에 전해준 것으로 보인다. 현전하는 <여행도>는 민 씨의 현손이 1852년에 다시 베껴낸 것이다. 그리고 그 현손은 이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행도>는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은 놀이판을 둘러싸고 있는 맨 아래 줄로, 악녀(惡女)와 악행(惡行)으로 가득 차 있다. 두 번째 부분은 맨 아래 줄에서 한 줄 안으로 들어온 곳으로, 여성

들이 지켜야 할 행실로 이루어져 있다. 세 번째 부분은 그 안쪽으로 세로 7칸, 가로 5칸에 걸쳐 뛰어난 여성 32명의 이름과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태임(太任)’이다. ‘여편네 중 성인이라’는 설명이 있는 이 곳은 놀이가 끝나는 곳이다.

<여행도>는 맨 아랫줄 중간에 있는 ‘스(肆), 위(僞), 지(才), 행(行), 경(敬), 성(誠)’에서 시작한다. 이 놀이는 각 면에 ‘스(肆), 위(僞), 지(才), 행(行), 경(敬), 성(誠)’이 새겨져 있는 육면체의 주사위 [윤목(輪木)] 를 가지고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각 칸에는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글자에 따라 움직여 가야 하는 곳이 적혀 있다. 이러한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성으로서 해야 할 일과 말아야 할 일, 본받아야 할 여인과 그러지 말아야 할 여인의 행적을 받아들이고 체득하게 된다.

<여행도>는 조선 여성의 최고 지존인 왕후가 직접 만들었다는 자체로 의미가 크다. 특히 그 내용이 여성의 행실과 관련된다는 점도 주목된다. <여행도>는 여성들에게 이념에 대한 순응과 그에 따른 행동을 가르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17세기 후반, 조선에서는 계녀서를 비롯한 많은 규훈류가 등장한다. 인현왕후가 <여행도>를 여동생에게 주었다는 것은, 놀이를 통하여 본받을 만한 여성들의 행실을 배우라는 목적에서이다. <여행도>는 ‘규훈(閨訓)’을 목적으로 하되, 놀이를 수단으로 한 독특한 형태이다.

본고에서는 <여행도>의 제작과 전승, 그리고 여행(女行)의 습득을 위한 놀이 방법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앞으로 왕실 여성에 의해 이루어진 <여행도>의 제작과 전승이 갖는 시대적 의미나 특징, 여타 규훈류와의 관계, 학습 효과 등을 분석할 일이 과제로 남아 있다.

〈부록〉 규문슈지여행지도(閨門須知女行之圖) 탈초 및 주석

* 일러두기

1. 탈초와 주석의 순서 : 맨 아래 칸 → 오른쪽 첫 칸 → 왼쪽 첫 칸 → 아래에서 둘째 칸 → 아래에서 셋째 칸 → 아래에서 넷째 칸 → 오른쪽 둘째 칸 → 왼쪽 둘째 칸 → 아래에서 다섯째 칸 오른쪽에서 차례로 올라감.
2. “行(행) 행. 행은 행실(行實)이요. 덩녀(貞女)”로 탈초하고 주석을 단 경우, 맨 앞의 행은 <여행도>에 적혀 있는 한자. (행)은 현재의 표기. 행은 <여행도>의 표기. 그 외의 ‘행은 ~ 덩녀’는 <여행도>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 한자와 마침표 등은 필자가 넣었음.

〈閨門須知女行之圖〉

- 禽獸(금수) 짐승.
- 金娥(김아)²³⁾ 김아. 아버이 꾸짖던 이라. 성 : 왕남모, 경 : 난당, 위 스 : 짐승
- 蘭貞(난정) 난당. 뉴원형²⁴⁾에 처(妻)니 무상(無狀) 사납더라. 성 : 현녕 처, 경 : 왕남모, 위 : 김아, 스 : 짐승
- 肆(사) 스. 스는 방쇼²⁵⁾해야 못 쓰미라. 악녀(惡女).
- 僞(위) 위. 위는 거짓일이오. 할녀(黠女).
- 才(재) 지. 지는 지조요. 지녀(才女).
- 行(행) 행. 행은 행실(行實)이요. 덩녀(貞女).
- 敬(경) 경. 경은 마음이 전일(專一)히미라. 현녀(賢女).
- 誠(성) 성. 성은 마음이 전일(專一)히미라. 정녀²⁶⁾.
- 王覽母(왕람모) 왕남모. 다삼자식(子息)²⁷⁾을 보치더니라.

23) 누군지 알 수 없다.

24) 윤원형(尹元衡 1503-1865)의 오기.

25) 방사(放肆)의 오기.

26) 성녀(聖女)의 오기.

- 李氏(이씨)²⁸ 리씨. 술을 즐겨 혼 동이에 종 하나씩 주니 꺾가(敗家)하니라. 성 : 기주(嗜酒), 경 : 현녕처, hing : 불부(不夫), 위 : 난녕, 스 : 김아.
- 玄齡妻(현령처) 현녕처. 시암²⁹발아 죽을 일 허지 안니터라³⁰. 성 : 학하(虐下), 경 : 타가(治家), hing : 조언(造言), 위 : 리씨, 스 : 난녕.
- 惰社(타사) 타사. 제사를 게을리 하니라. 성 : 숭불(崇佛), 경 : 탐식(貪食), hing : 기주(嗜酒), 위 : 불수³¹, 스 : 불효(不孝).
- 嗜酒(기주) 기주. 술 즐기니라. 성 : 탐면(貪眠), 경 : 희오(嬉娛), hing : 기병(嗜餅), 위 : 간사(姦邪), 스 : 리씨.
- 嗜餅(기병) 기병. 썩 즐기니라. 성 : 사치(奢侈), 경 : 침신(詔神), hing : 탐식(貪食), 위 : 조언(造言), 스 : 불부(不夫).
- 貪食(탐식) 탐식. 군음식 하여 먹으니라. 성 : 부탄(浮誕), 경 : 숭불(崇佛), hing : 희오(嬉娛), 위 : 타사(惰社), 스 : 불우(不友).
- 嬉娛(희오) 희오. 노름소리 즐기니라. 성 : 공과(矜誇), 경 : 탐면(貪眠), hing : 침신(詔神), 위 : 기주(嗜酒), 스 : 간사(姦邪).
- 詔神(침신) 침신. 신스(神事)하니라. 성 : 나타(懶惰), 경 : 사치, hing : 숭불, 위 : 기병, 스 : 조언.
- 崇佛(숭불) 숭불. 불사(佛事)를 숭상(崇尚)하니라. 성 : 디둔(遲鈍), 경 : 부탄, hing : 탐면, 위 : 탐식, 스 : 강표³².
- 貪眠(탐면) 탐면. 잠 쓰기 즐기니라. 성 : 기쇼(嗜笑), 경 : 공과(矜誇), hing

27) 의붓아들. 왕람의 어미 주씨(朱氏)가 배다른 자식 왕상(王祥)의 괴롭히다가 독약으로 죽이려고까지 하였다. 왕람이 그것을 알고 독약을 빼앗은 후, 왕상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먼저 맛을 보았다고 한다.

28) 누군지 알 수 없다.

29) 샘. 질투.

30) 당나라 개국공신 방현령의 아내 노씨(盧氏). 방현령에게 당 태종이 두 미녀를 하사하였으나, 노 씨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당 태종이 독주를 주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술을 마시고 죽으라고 하자, 노 씨는 주저 없이 마셨다고 한다. 그것은 독주가 아니라 식초가 든 것이었는데, 이로써 '吃醋(홀초)'라는 말이 생겼다. 이 말은 현재 질투가 매우 심하다는 뜻으로 쓰인다.

31) 불부(不夫) 또는 불우(不友)의 오기.

32) 강포(剛暴)의 오기.

: 사치(奢侈), 위 : 희오, 스 : 투괴(妬忌).

- 奢侈(사치) 사치. 사치하미라. 성 : 경박(輕薄), 경 : 나타, 힝 : 부탄, 위 : 침선(針線), 스 : 지기³³).
- 浮誕(부탄) 부탄. 부탄되오미라. 성 : 희학(戲謔), 경 : 기쇼, 힝 : 궁과, 위 : 탐면, 스 : 학하(虐下).
- 矜誇(궁과) 궁광³⁴ 자랑 성(盛)저그미라. 성 : 휴혈³⁵, 경 : 기쇼, 힝 : 나타, 위 : 탐면, 스 : 학하.
- 懶惰(나타) 나타. 게으르미라. 성 : 호악(好樂), 경 : 경박(輕薄), 힝 : 디둔(遲鈍), 위 : 사치, 스 : 탐지(貪財).
- 遲鈍(지둔) 디둔. 둔박(鈍朴)하미라. 성 : 방적(紡績), 경 : 희악³⁶, 힝 : 기쇼(嗜笑), 위 : 부탄, 스 : 던천((專擅).
- 嗜笑(기쇼) 기쇼. 우슴 즐기미라. 성 : 침선(針線), 경 : 휴혈³⁷, 힝 : 경박(輕薄), 위 : 궁과, 스 : 교만(驕慢).
- 輕薄(경박) 경박. 경박하미라. 성 : 직조(織造), 경 : 호악, 힝 : 희학, 위 : 나타, 스 : 진의(嗔恚)³⁸).
- 戲謔(희학) 희오³⁹. 부조(浮躁) 즐기미라. 성 : 주괴⁴⁰, 경 : 방적, 힝 : 휴혈, 위 : 기쇼, 스 : 한괵(狠愎).
- 休歇(휴혈) 휴혈. 혈후하미라. 성 : 치산(治産), 경 : 침선, 힝 : 호악, 위 : 기쇼, 스 : 귀이⁴¹).
- 好樂(호악) 호악. 풍유(風流) 즐기미라. 성 : 근간(勤幹), 경 : 음영(吟詠), 힝 : 방적, 위 : 경박, 스 : 간린(慳吝).

33) 시기(猜忌)의 오기. 지식(智識) 또는 지도(知道)의 오기로 볼 수도 있으나 칸이 다른 관계로 그렇게 보기는 어려움. 지기는 없음.

34) '궁과'의 오기.

35) '휴혈(休歇)'의 오기.

36) '희학(戲謔)'의 오기.

37) '휴혈'의 오기.

38) 오기라기보다는 '恚'를 '의'로 음독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9) '희학'의 오기.

40) '주괵(主饋)'의 오기.

41) '괵이(詭異)'의 오기.

- 不孝(불효) 불효. 어버이게 불효함이라. 성 : 투기(妬忌), 경 : 간사(姦邪),
 힝 : 불부(不夫), 위 : 나덩, 스 : 김아.
- 不夫(불부) 불부. 남편(男便)을 공경(恭敬)치 아니 함이라. 성 : 서귀⁴²⁾,
 경 : 조언(造言), 힝 : 불우(不友), 위 : 왕남모, 스 : 난덩.
- 不友(불우) 불우. 동생(同生) 사랑 아니 함이라. 성 : 불목(不睦), 경 : 강
 포(剛暴), 힝 : 간사, 위 : 리시, 스 : 난덩.
- 姦邪(간사) 간사. 간사(奸詐)하고 사특(邪惡)함이라. 성 : 학하(虐下), 경 :
 투기, 힝 : 조언, 위 : 불효, 스 : 난덩.
- 造言(조언) 조언. 거짓말 지어내미라. 성 : 탐지(貪財), 경 : 식귀(猜忌), 힝
 : 강포, 위 : 불우, 스 : 왕남모.
- 剛暴(강포) 강포. 강(強)함이라. 성 : 전천(專擅), 경 : 불목(不睦), 힝 : 투
 기, 위 : 불우, 스 : 왕남모.
- 妬忌(투기) 투기. 식암브름이라. 성 : 교만, 경 : 학하, 힝 : 식귀, 위 : 현령
 처(玄齡妻), 스 : 불효.
- 猜忌(시기) 식귀. 남을 식귀함이라. 성 : 진의(嗔恚), 경 : 탐지, 힝 : 불목,
 위 : 조언, 스 : 불부.
- 不睦(불목) 권당(眷黨)⁴³⁾ 사랑치 안니함이라. 성 : 혼팍(狠悞), 경 : 던천
 (專擅), 힝 : 학하, 위 : 타사(惰社), 스 : 불우(不友).
- 虐下(학하) 학하. 아래사람에게 사오나오미라. 성 : 웨이(詭異), 경 : 교만,
 힝 : 던천, 위 : 기병(嗜餅), 스 : 조언.
- 貪財(탐재) 탐지. 탐심(貪心) 만함이라. 성 : 간린(慳吝), 경 : 진의(嗔恚),
 힝 : 던천, 위 : 기병, 스 : 조언.
- 專擅(전천) 던천. 집일 제 다 던사(專事)함이라. 성 : 다언(多言), 경 : 한
 팍, 힝 : 교만, 위 : 탐식(貪食), 스 : 강표⁴⁴⁾.
- 驕慢(교만) 교만. 남 업슈이 역이미라. 성 : 기소(嗜笑), 경 : 웨이, 힝 : 진
 의(嗔恚), 위 : 회호⁴⁵⁾, 스 : 투기(妬忌).

42) '식귀(猜忌)'의 오기.

43) 일정 범위에 있는 친인척(親姻戚).

44) '강포(剛暴)'의 오기.

45) '회오(嬉娛)'의 오기.

- 嗔恚(진에) 진의. 심증(心症) 즐기미라. 성 : 경박(輕薄), 경 : 간린(慳吝),
형 : 한팍, 위 : 침신(詔神), 스 : 식기.
- 狼悞(한팍) 한팍. 애 굿고 가복ㅎ미라. 성 : 희학(戲謔), 경 : 당언⁴⁶⁾, 형 :
케이, 위 : 승불, 스 : 불목(不睦).
- 詭異(케이) 케이. 슈상(殊常)그리미라. 성 : 휴혈⁴⁷⁾, 경 : 기쇼, 형 : 간린,
위 : 탐면, 스 : 학하.
- 慳吝(간린) 간린. 다라오미라⁴⁸⁾. 성 : 호악(好樂), 경 : 경박(輕薄), 형 : 다
언(多言), 위 : 사치(奢侈), 스 : 탐지.
- 多言(다언) 다언. 시(時) 운운(云云)ㅎ미라. 성 : 방적(紡績), 경 : 희학(戲
謔), 형 : 기쇼, 위 : 부탄, 스 : 던천.
- 紡績(방적) 방적. 질삼하미라. 성 : 티가(治家), 경 : 주궤(主饋), 형 : 침선
(針線), 위 : 희악⁴⁹⁾부탄, 스 : 다언.
- 惡女(악녀) 악녀. 모질미라. 성 : 방적(紡績), 경 : 나타(懶惰), 형 : 승불,
지 : 학하, 위 : 투기, 스 : 불부.
- 才女(재녀) 지녀. 지조 잇음이라. 성 : 변통(辯通), 경 : 독서(讀書), 형 :
티가, 지 : 음영(吟詠), 위 : 호악(好樂), 스 : 다언.
- 賢女(현녀) 갓초 어질미라. 성 : 지도(知道), 경 : 현명(賢明), 형 : 안빈(安
貧), 지 : 변통(辯通), 위 : 슈형(修行), 스 : 티가.
- 貞女(정녀) 덩녀. 덩절(貞節) 잇으미라. 성 : 효순(孝順), 경 : 절의(節義),
형 : 경부(敬夫), 지 : 독서(讀書), 위 : 근간(勤幹), 스 : 방적(紡績).
- 黠女(할녀) 할녀. 궤로으미라. 성 : 티가, 경 : 방적, 형 : 경박(輕薄), 지 :
간린, 위 : 부탄, 스 : 탐지.
- 吟詠(음영) 음영. 풍월(風月) 즐기미라. 성 : 독서, 경 : 치가, 형 : 티산(治
産), 위 : 호악, 스 : 희학.
- 修行(수행) 슈형. 형실(行實) 닷그미라. 성 : 심신(審慎), 경 : 화유(和柔),
형 : 흘하(恤下), 위 : 독서, 스 : 치가.

46) '다언(多言)'의 오기.

47) '휴혈(休歇)'의 오기.

48) 다랍다. 인식함.

49) '희학(戲謔)'의 오기.

- 讀書(독서) 독서. 글 읽으미라. 성 : 변통, 경 : 화유, hing : 교린(交隣), 기쇼, 위 : 치가, 스 : 음영.
- 勤幹(근간) 근간. 부즐런코 즐거오미라. 성 : 슈hing(修行), 경 : 독서, hing : 티가, 위 : 음영, 스 : 호악.
- 治産(치산) 티산. 세간 잘 다사리미라. 성 : 독서, 경 : 치가, hing : 근간, 위 : 직조, 스 : 휴혈⁵⁰⁾.
- 聖女(성녀) 성녀. 성인(聖人)의 턴질(天質)을 가지미라. 성 : 명시(程氏), 경 : 범시(范氏), hing : 디도(知道), 위 : 디도, 스 : 현명.
- 主饋(주궤) 주궤. 차반(茶飯) 잘 날으미라. 성 : 독서, 경 : 근간, hing : 치산, 위 : 침선, 스 : 회학.
- 織造(직조) 직조. 베 짜미라. 성 : 접빈(接賓), 경 : 근간, hing : 주궤, 위 : 호악, 스 : 경박.
- 針線(침선) 침선. 바나질 잘 하미라. 성 : 접빈, 경 : 티산, hing : 직조, 위 : 휴혈⁵¹⁾, 스 : 기쇼.
- 治家(치가) 티가. 집 다사리미라. 성 : 교린, 경 : 독서, hing : 접빈, 위 : 치산, 스 : 방적.
- 接賓(접빈) 접빈. 손 대접(待接) 잘 하미라. 성 : 훌하, 경 : 교린, hing : 독서, 위 : 티가, 스 : 음영.
- 辯通(변통) 변통. 말을 통니(通理)케 하미라. 성 : 절의(節義), 경 : 필힐모(佛盼母), hing : 교자(教子). 위 : 심신(審慎), 스 : 훌하.
- 節義(절의) 절의. 절의(節義) 놓고 의기(義氣) 잇시미라. 성 : 설시(薛氏), 경 : 김시(金氏), hing : 연지(涓之), 위 : 우애(友愛), 스 : 필힐모(佛盼母).
- 安貧(안빈) 안빈. 가난을 편안(便安)이 녀이고 어진 일 하미라. 성 : 접여처(接興妻), 경 : 쇼군(少君), hing : 목족(睦族), 위 : 연지(涓之), 스 : 필힐모(佛盼母).
- 孝順(효순) 효순. 아버지 효도(孝道) 잘하미라. 성 : 방시(龐氏), 경 : 노시(盧氏), hing : 양향(楊香), 위 : 쇼군(少君), 스 : 목족.
- 和柔(화유) 화유. 마음이 가이 화유(和柔)하미라. 성 : 간묵(簡默), 경 : 심

50) '휴혈(休歇)'의 오기.

51) '휴혈(休歇)'의 오기.

- 신, 횡 : 경부(敬夫), 위 : 흘하, 스 : 독서.
- 審愼(심신) 심신. 잡은 일 조심하야 삼가미라. 성 : 공순(恭順), 경 : 간묵(簡默), 횡 : 근제(謹祭), 위 : 경부(淸之), 스 : 슈횡(修行).
 - 簡默(간묵) 간묵. 거동(舉動)이 천천하고 말슴이 적으미라. 성 : 절의(節義), 경 : 공순(恭順), 횡 : 교자(教子), 위 : 근제(謹祭), 스 : 슈횡(修行).
 - 恭順(공순) 공순. 공순하야금 고마워 하미라. 성 : 단장(端莊), 경 : 청검(淸儉), 횡 : 우의(友愛), 위 : 변통(辯通), 스 : 심신(審愼).
 - 淸儉(청검) 청검. 청렴(淸廉)하고 검박(儉朴)하미라. 성 : 순일(純一), 경 : 단장(端莊), 횡 : 안빈(安貧), 위 : 절의(節義), 스 : 공순(恭順).
 - 端莊(단장) 단장. 단정(端正)하고 정다오미라. 성 : 슈례(守禮), 경 : 순일(純一), 횡 : 회순(孝順), 위 : 김시(金氏), 스 : 청검(淸儉).
 - 純一(순일) 순일. 마음이 경(淨)하여 잡(雜)된 염여(念慮) 업슴이라. 성 : 현명(賢明), 경 : 수례⁵²⁾(守禮), 횡 : 노시(盧氏), 위 : 지식(知識), 스 : 단정⁵³⁾.
 - 守禮(수례) 수례. 제 법(法) 직히미라. 성 : 지도(知道), 경 : 현명(賢明), 횡 : 방시(龐氏), 위 : 동시(董氏), 스 : 우희(虞姬).
 - 交隣(교린) 교린. 마을사람 잘 사고미라. 성 : 경부, 경 : 흘하, 횡 : 슈횡, 위 : 접빈(接賓), 스 : 치가(治家).
 - 恤下(흘하) 흘하. 아래사람 어엿비 역이니라. 성 : 변통, 경 : 경부, 횡 : 화유, 위 : 교린, 스 : 접빈.
 - 敬夫(경부) 경부. 남편 공경(恭敬)하미라. 성 : 교자(教子), 경 : 근제(謹祭), 횡 : 심신(審愼), 위 : 화유(和柔), 스 : 교린(交隣).
 - 謹祭(근제) 근제. 제사(祭祀)를 조심(操心)하야 정성(精誠)으로 하니라. 성 : 우의(友愛), 경 : 교자(教子), 횡 : 간묵(簡默), 위 : 심신(審愼), 스 : 흘하(恤下).
 - 教子(교자) 교자. 아달 잘 가라치미라. 성 : 목족(睦族), 경 : 우의(友愛), 횡 : 공순(恭順), 위 : 변통(辯通), 스 : 경부(敬夫).
 - 友愛(우애) 우애. 동생(同生) 가장 사랑하미라. 성 : 효순(孝順), 경 : 목족

52) '수례'의 오기인 듯하나, 일관되게 표기하고 있어 그대로 살린다.

53) '단장(端莊)'의 오기.

(睦族), ings : 절의(節義), 위 : 필힐모(佛忻母), 스 : 근제(謹祭).

- 睦族(목족) 목족. 권낭⁵⁴ 사랑하미라. 성 : 현명(賢明), 경 : 효순(孝順), ings : 단장(端莊), 위 : 김시(金氏), 스 : 교자(敎子).
- 楊香⁵⁵(양향) 양향. 아버를 범이 물어가거날 내달아 치고 안으니라. 성 : 당시(唐氏), 경 : 견시(甄氏), ings : 노시(盧氏), 위 : 설시(薛氏), 스 : 김시(金氏).
- 少君⁵⁶(소군) 소군. 남편을 조차 비단옷을 버리고 가난을 즐기미라. 성 : 검누처(黔婁妻), 경 : 첨여처⁵⁷, ings : 효순(孝順), 위 : 우희(虞姬), 스 : 안빈(安貧).
- 金氏⁵⁸(김씨) 김씨. 남편을 범이 물어가거날 니다라 치고 안으니라. 성 : 동시(董氏), 경 : 설시(薛氏), ings : 우희(虞姬), 위 : 목족(睦族), 스 : 절의(節義).
- 佛忻母⁵⁹(필힐모) 필힐모. 마를 올케 ㅎ야 죄(罪)랄 면(免)ㅎ니라. 성 : 우

54) '권당(眷黨)'의 오기.

55) 세종 조의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에는 노나라 사람으로 되어 있고, 정조 조의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에는 남북조(南北朝) 시대의 송(宋)나라 사람으로 되어 있다. 제목은 양향액호(楊香掇虎)이다. 양향이 14세 때, 조를 베다가 아버지를 무는 범의 목을 잘라 구해냈고, 이에 관아에서 상으로 곡식을 주고 그 집에 홍문(紅門)을 세웠다.

56) 한(漢)나라 문인 포선(鮑宣)의 아내 환씨(桓氏). 소군의 그녀의 자(字). 소군이 시집 올 때 재물을 성대히 하여 오자, 포선이 달가워하지 않았다. 이에 소군의 그 뜻을 받들어 모든 물건들을 돌려보내고 짧은 베치마에 작은 수레를 타고 포선의 고향으로 가서 시부모를 뵈었다. 그리고는 물동이를 지고 물을 길는 등 부도를 다하자 동리에서 칭송이 자자하였다. 『한서(漢書)』 <열녀전(列女傳)>에 실려 있다.

57) '첨여처(接輿妻)'의 오기.

58) 『삼강행실도』에는 <김씨박호(金氏樸虎)>라는 제목으로 '김씨는 우리나라 안동(安東) 사람이라. 유천개(兪天桂)의 체(妻) 되엿찌니'로 시작된다. 내용은 '밤에 남편이 호랑이에게 물려가자, 김 씨가 한손으로는 남편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호랑이를 치자, 호랑이가 60보쯤 가다가 멈추었다. 이에 김씨가 남편을 잡아가면서 자기까지 잡아가려느냐고 하자 호랑이가 물러났다. 다음날 밤에 호랑이가 또 왔다. 김씨가 호랑이에게 신령한 동물이면서 어찌 이리 심하게 구냐고 힐책하자, 호랑이가 옆에 있는 배나무를 물어뜯고는 가버렸다. 배나무는 말라 죽었다.'는 것이다.

59) 조나라 중모성(中牟城)의 성주 필힐의 어머니. 필힐이 모반하였다가 실패하는 바람

희, 경 : 년지(涓之), 횡 : 공순, 위 : 변통(辯通), 스 : 경부.

- 涓之⁶⁰(연지) 연지. 아버 죄 님게 되어서니 말을 올히 흐여 면(免)하니라. 성 : 지식(知識), 경 : 우희, 횡 : 안빈, 위 : 우이(友愛), 스 : 필힐모.
- 薛氏⁶¹(설씨) 설씨. 남편과 거우로를 난화 오래 수절(守節)하였다가 만난 나라. 성 : 숙영(淑英), 경 : 동시(董氏), 횡 : 지식(知識), 위 : 효순(孝順), 스 : 김시(金氏).
- 知道(지도) 디도. 디도난 도리(道理)를 안다. 흐난 말이니 도리난 사람의 하 올 어진 일이라. 도리를 진실로 아니⁶² 의심(疑心)이 업스면 명인(名人)이 되난 길희 드러가리라. 성 : 덩시(程氏), 경 : 범시(范氏), 스 : 현명(賢明).
- 接輿妻⁶³(접여처) 접여처. 남편(男便)을 권(勸)하야 정승(政丞) 벼살 바리

에, 그 어미 또한 연좌로 죽게 되었다. 그 어미는 왜 자신도 죽어야 하나며 항의하였다. 아들이 모반한 것은 어미가 자식을 잘 가르치지 못한 탓이기에 죽어야 한다고 하자, 자신은 어미로서의 직분을 다하였다고 항변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신하로 택한 것은 주군(主君)이니, 필힐은 주군의 신하로서 행동한 것이지, 자기 자식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기에 죄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이에 주군인 조양자(趙襄子)가 그 어미를 석방하였다. 유향(劉向)의 『열녀전(列女傳)』에 나온다.

- 60) 유향이 지은 『열녀전(列女傳)』의 <조진녀연(趙津女娟)>을 가리킨다. 연(娟)은 조나라 강나루 관리의 딸이며, 훗날 조나라의 군주인 조간자(趙簡子)의 부인이 된 여인이다. 조간자가 초나라를 공격할 때, 강을 건널 날짜를 약속하고 왔으나 나루의 관리가 술에 취하여 잠든 바람에 강을 건널 수 없게 되었다. 조간자가 관리를 죽이려고 하자, 연이 달려와 자기 아버지는 물결을 잔잔하게 하려고 기도하다가 울린 술을 마시는 바람에 취했으며, 취한 사람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전혀 모르는데, 만일 조간자가 취한 사람을 죽인다면 이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이에 조간자가 관리를 살려주고, 끝내 연을 부인으로 삼았다고 한다. 따라서 ‘津女娟’으로 하는 것이 옳다. ‘연지(涓之)’는 바로 위 칸에 있는 ‘우희(虞姬)’의 이름인 연지(娟之)의 오기이다. 여기에서는 일단 칸에 있는 글자인 연지(涓之)로 탈초한다.
- 61) 설씨녀는 자신의 홀아버지를 대신해 수자리를 나가기로 한 가실(嘉實) 총각과 거울을 반으로 나누어 신표로 삼은 후 3년을 기한으로 이별하였다. 약속한 3년이 지나 6년이 되어도 가실이 돌아오지 않자, 집안에서는 설씨녀를 시집보내려고 하였다. 혼인날에 설씨녀는 도망치려다가 실패하여 낙담하고 있을 때, 초라한 행색의 가실이 나타나 반쪽 거울을 내밀었다. 이에 두 사람은 백년해로하였다. 『삼국사기』 열전(列傳)에 실려 있다.
- 62) ‘아라’의 오기.

게 하니라. 성 : 현명, 경 : 검누처(黔婁妻), 형 : 노씨(盧氏), 위 : 지식, 스 : 쇼군(少君).

- 盧氏⁶⁴(노씨) 노씨. 강도(強盜) 들거날 죽을 일 헤아리지 아니 하고 식어 마님 구완한다. 성 : 데령(緹縈), 경 : 방씨(龐氏), 형 : 견씨(甄氏), 위 : 접 여처, 스 : 효순(孝順).
- 甄氏⁶⁵(견씨) 견씨. 아버이 병드거날 외오서 마음의 놀니여 일야(日夜) 구원(救援)하다. 성 : 진효부(陳孝婦), 경 : 당씨(唐氏), 형 : 방씨(龐氏), 위 : 동씨(董氏), 스 : 양향(楊香).
- 黔婁妻⁶⁶(검루처) 검누처. 가난하되 어진 일을 즐겨 비식(鄙塞)흔 일을

63) ‘초광(楚狂)’이라고 불린 은자(隱者) 육통(陸通)의 아내. 초나라 왕이 육통에게 회남(淮南) 땅을 다스려 달라며 사신을 보냈다. 시장에서 돌아온 육통의 아내는 문 앞에 갓게 새겨진 수레바퀴 자국을 보고 상황을 판단한 후, 의로운 선비는 뜻을 굽히지 않는 법이라고 말한다. 육통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자, 육통의 아내는 ‘임금이 사신을 보냈는데 따르지 않는 것은 불충(不忠)이요,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 불의(不義)이니 떠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이사를 했는데, 아무도 간 곳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열녀전』에 실려 있다.

64) 당(唐)나라 정의종(鄭義宗)의 아내. 시부모를 잘 섬겼다. 어느 날 밤에 강도 수십 명이 몽둥이를 들고 북을 치고 떠들며 담을 넘어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가 방에 남아 있었다. 노씨(盧氏)는 위험을 무릅쓰고 시어머니 곁으로 갔다. 그리고는 도적에게 맞아 거의 죽게 되었다. 도적이 간 뒤에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냐고 묻자, 노씨는 ‘사람이 금수와 다른 것은 그 인의(仁義)가 있기 때문이니, 만약 시어머니가 위태롭거나 화를 당하면, 어찌 마땅히 혼자만 살겠는가?’라고 답하였다. 『당서(唐書)』 <열전(列傳)>에 있다.

65) 명(明)나라 이대(李大)의 아내. 시부모를 잘 봉양하였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이대의 동생 집에 간다고 하여 견씨가 모시고 갔다. 견씨는 그곳에서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만 집으로 가서 이대를 돌보라고 명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돌아왔다. 그리고 얼마 후 시어머니가 중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 멀리서부터 길을 가며 기도를 올렸다. 시어머니 곁에 돌아온 이후는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구호하자, 며칠 후 시어머니의 병이 나았다. 나라에서 정문(旌門)을 내렸다. 『명사(明史)』와 『고금열녀전(古今列女傳)』에 실려 있다.

66) 노(魯)나라 검루(黔婁)의 아내. 검루는 평생 벼슬하지 않고 살았는데, 어질게 그 뜻을 잘 따른 검루의 아내는 ‘가난을 즐기고 도를 행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루가 죽었을 때, 증자와 그의 문인들이 가서 조문을 하였다. 증자는 검루의 시신을 덮은 이불이 짧아 온몸을 가릴 수 없는 것을 보고, 조금 큰 것으로 하면 어떠냐고 물었다.

아니 하더니라. 성 : 밍광(孟光), 경 : 현명(賢明), 횡 : 방시(龐氏), 위 : 도답처(陶答妻), 스 : 접여처(接輿妻).

- 范氏⁶⁷⁾(범씨) 범시. 마음이 정(貞)하여 훗터지지 아니터라. 성 : 숙향모(叔向母), 경 : 덩시(程氏), 스 : 지도(知道).
- 董氏⁶⁸⁾(동씨) 동시. 남편이 멀이 나갓거날 머리를 봉(封)하였다가 온 후(後)의 비스니라. 성 : 풍소의(馮昭儀), 경 : 숙영(淑英), 횡 : 도답처(陶答妻), 위 : 노시(盧氏), 스 : 설시(薛氏).
- 虞姬⁶⁹⁾(우희) 우희. 임금이 말을 드르사 나라를 편(便)케 하시니라. 성 : 교자(敎子), 경 : 지식(知識), 횡 : 쇼군(少君), 위 : 안빈(安貧), 스 : 연지(涓之).

그러자 검루의 아내는 모자라도 바르게 덮는 것이 평생 굽은 일을 하지 않은 남편의 뜻에 맞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내는 의에 따라 살고 분수에 넘치는 것을 받지 않은 검루의 뜻을 받아들이고 칭송하였다. 『열녀전』에 실려 있다.

- 67) 오(吳)나라 손기(孫奇)의 아내. 이름은 희(范姬). 범희는 18세에 손기에게 시집갔으나, 1년 만에 남편 상을 당했다. 아버지 범신(范慎)은 범희가 젊고 자식이 없다 하여 다시 혼인을 시키기 위하여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범희는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가려는 것은 나의 젊음과 약간의 아름다움 때문’이라며 칼로 자신의 귀와 코를 잘라 버렸다. 이에 데리러 온 사람이 그냥 돌아갔다. 『태평어람(太平御覽)』에 실려 있다.
- 68) 당(唐)나라 가직언(賈直言)의 아내. 가직언이 어떤 일에 연루되어 영남(嶺南)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당시 아내 동씨는 매우 젊었다. 가직언은 ‘이번에는 생사를 기약할 수 없으니 내가 가져든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도 좋다’고 하였다. 그러자 동씨는 대답 대신에 줄로 머리를 묶고 비단으로 싸맨 후, 가직언에게 서명하라고 하며 ‘그대가 아니면 풀 수 없다.’고 하였다. 가직언이 2년 유배 후 돌아와 보니 서명한 비단이 그대로였다. 『신당서(新唐書)』 <열녀전>에 실려 있다.
- 69) 제(齊)나라 위왕(威王)의 후궁(後宮). 이름은 연지(娟之). 제 위왕 때, 충애를 받는 주과호(周破胡)가 전권을 휘두르자, 우희가 ‘주과호는 아첨하는 신하이니 물리치고 북쪽선생을 등용하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주과호는 ‘우희가 어렸을 때부터 북쪽선생과 정을 통했다고 모함하였다. 이에 위왕이 우희를 가두었다가 조서에 의심이 들어 다시 사실 여부를 물었다. 우희가 다시 강하게 ‘주과호는 간신이니, 왕이 직접 정치를 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로워 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왕이 크게 깨달아 우희를 풀어 주고 크게 상을 내렸다. 그리고 주과호를 평형(烹刑)에 처하자, 다른 신하들은 두려워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직무에 힘썼다. 그 결과 제나라는 크게 다스려졌다. 『열녀전』에 실려 있다.

- 知識(지식) 지식. 지혜(智慧) 높흐미라. 성 : 칠실여(漆室女), 경 : 도담처(陶答妻), 흥 : 접여처(接輿妻), 위 : 안빈(安貧), 스 : 연지(涓之).
- 淑英⁷⁰(숙영) 숙영. 남편이 귀향 갖거날 머리 베풀고 기다리더니 후에 만나라. 성 : 고흥(高行), 경 : 풍소의(馮昭儀), 흥 : 칠실여(漆室女), 위 : 방시(龐氏), 스 : 동시(董氏).
- 程氏⁷¹(정씨) 덩시. 덩명도(程明道) 짜님이시니 어지러 덕(德)이 가장 잇난 선비 갖더라. 성 : 덩모(孟母), 경 : 숙향모(叔向母).
- 賢明(현명) 현명. 어질고 밝으미라. 성 : 후시(候氏), 경 : 덩광(孟光), 위 : 칠실여(漆室女), 스 : 검누처(黔婁妻).
- 龐氏⁷²(방씨) 방시. 효성(孝誠)이 높하 하늘이 감동(感動)하시게 하너니

70) 당(唐)나라 이덕무(李德武)의 아내 배숙영(裴淑英). 안읍공(安邑公) 배구(裴矩)의 딸로, 시집간 지 일 년 남짓 만에 남편 이덕무가 어떤 일에 연루되어 유배를 가게 되었다. 이에 배구가 이혼을 시키려고 하자, 이덕무는 ‘유배를 가면 돌아올 리 만무하고, 그대는 다른 짝을 찾을 터이니 그만 이별하자’고 말하였다. 배숙영은 ‘남편은 하늘이니 배신할 리 없다’며 귀를 잘라 맹세하려고 하다가 부모가 말리는 바람에 그쳤다. 배숙영은 <열녀전>을 읽다가 ‘또 다시 시집가지 않았다’는 구절을 보고는 ‘당연한 일인데 무엇이 특별하다고 책에 기록해 두었는가?’하며 의아해 하였다. 10년이 넘도록 이덕무가 돌아오지 않자, 배구가 숙영에게 혼인을 권하였다. 그러자 숙영은 머리를 자르고 아무 것도 먹지 않았다. 배구는 뜻을 빼앗을 수 없음을 알고 포기하였다. 그동안 이덕무는 주씨(朱氏)와 혼인하였다. 유배가 풀려 돌아올 때, 이덕무는 배숙영의 정절을 알고 후처 주씨를 돌려보냈다. 『신당서』 <배숙영전>과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에 실려 있다.

71) 송(宋)나라의 유학자 정호(程顥)의 딸.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 정씨(程氏)라고 불린다. 정씨는 어려서부터 단정하고 정숙하여 함부로 웃거나 말하지 않았다. 정씨는 독서를 열심히 하고 도에 대하여 듣는 것을 좋아하였다. 어머니가 죽자 정씨는 효녀로서의 도리를 다하였다. 25세에 죽었는데, 숙부 정이(程頤)는 ‘나와 아버지가 성현(聖賢)을 스승으로 삼자, 질녀(姪女)는 그 뜻에 맞추지 못할까 항상 근심하였다.’고 하였다. 『하남정씨문집(河南程氏文集)』 <효녀정씨묘지(孝女程氏墓誌)』에 실려 있다. 이 글은 정이(程頤)가 썼다.

72) 한(漢)나라 강시(姜詩)의 아내. 시어머니가 강물 마시는 것을 좋아하여 방씨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장강(長江)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드렸다. 또 시어머니가 회를 좋아함에, 강시와 방씨는 물고기를 잡아 봉양하였다. 시어머니가 혼자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자 동리 사람들도 초대하여 대접하였다. 어느 날, 물을 길러 간 방씨는 큰 바람이 부는 바람에 늦게 돌아왔다. 강시는 어머니에 대하여 나태한 태도를 가졌다면 방

라. 성 : 후시(侯氏), 경 : 제영(緹縈), 횡 : 당시(唐氏), 위 : 검은처(黔婁妻), 스 : 노시(盧氏).

- 唐氏⁷³(당씨) 당시. 효성(孝誠)이 높하 식어마님이 업거날 그 제스(祭祀)로써 치성(致誠)터라. 성 : 후시(侯氏), 경 : 진효부(陳孝婦), 횡 : 제영(緹縈), 위 : 숙영(淑英), 스 : 견시(甄氏).
- 孟光⁷⁴(맹광) 밍광. 부처(夫妻) 서로 공경(恭敬)하여 네(禮)랄 아더니라. 성 : 반첩여(班婕妤), 경 : 후시(侯氏), 횡 : 위 : 정손모⁷⁵, 스 : 현명(賢明).
- 叔向母⁷⁶(숙향모) 숙향모. 도리(道理)를 통달(通達)하더니라. 성 : 경강(敬

씨를 내쫓았다. 방씨는 이웃에 살며 열심히 방적하여 돈을 벌어 시어머니를 봉양하였다. 모든 사실을 안 시어머니가 강시에게 방씨를 데려오라고 하였다. 방씨가 돌아오는 날, 뜰 안에 샘물이 솟았는데, 물맛이 장강의 것과 같았다. 그리고 그 샘에서 매일 두 마리의 물고기가 나왔다. 이로써 방씨는 더 이상 먼 장강까지 가지 않아도 되었다. 『이십사효도(二十四孝圖)』에 실려 있다.

73) 당(唐)나라 최관(崔暄)의 조모 당부인(唐夫人). 지극히 효성스러워 매일 소세(梳洗)를 마치면 이가 없어 씹을 수 없는 시어머니 장손부인(長孫夫人)에게 자신의 젓을 물렸다. 그 결과 곡식을 먹지 않았지만 장손부인은 더욱 건강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병이 든 장손부인은 친족들을 불러 놓고 ‘머느리의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으니 너희들은 그와 똑같이 효를 다하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최관은 장손부인의 말대로 당부인(唐夫人)에게 효를 다하였다. 『이십사효(二十四孝)』에 실려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시어머니가 죽고 난 후, 제사를 정성껏 올렸다는 내용이 없다. 물론, 이 정도의 효심이라면 충분히 제사를 열심히 모셨을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다른 기록은 찾을 수 없다.

74) 한나라의 은사(隱士) 양홍(梁鴻)의 아내.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으나, 양홍이 화려함을 싫어하자 가시나무 비녀와 베옷을 입고 나타났다. 이에 양홍이 맹광을 향하여 ‘이래야 양홍의 처’라고 하였다. 평생 남편을 공경하여 “거안제미(舉案齊眉)” 고사의 주인공이 되었다. “양홍맹광(梁鴻孟光)”은 이상적인 부부를 지칭한다. 『후한서(後漢書)』에 실려 있다.

75) ‘장손모(臧孫母)’의 오기.

76) 진(晉)나라 양설자(羊舌子)의 아내이며 양설힐(羊舌膺)의 어머니 숙희(叔姬). 숙향은 양설힐의 자(字). 양설자가 진나라에 동용되어 삼실(三室)이라는 작은 마을로 이사를 왔다. 그 마을 사람들이 양고기를 줌에, 양설자가 받지 않으려고 하자, 숙희는 마을 사람들과 동화되려면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양설자가 그 고기를 아들들에게 삶아 먹이려고 하자, 숙희는 부정한 고기를 먹이면 아들이 그것을 닳는다며 물어버렸다. 후에 양고기가 훔친 것이라는 사실이 발각되어, 양설자가 조사를 받게

姜), 경 : 밍모(孟母).

- 馮昭儀⁷⁷⁾(풍소의) 풍소의. 임금게 꿈이 달아들거날 몸으로 당(當)하니라.
 성 : 공강(恭姜), 경 : 고행(高行), 형 : 진효부(陳孝婦), 위 : 당시(唐氏),
 스 : 숙영(淑英).
- 陶答妻⁷⁸⁾(도답처) 도답처. 남편이 탐(貪)커날 꺾(敗)할 줄 알고 말이더라.
 성 : 장손모(臧孫母), 경 : 칠실녀(漆室女), 형 : 검은취(黔婁妻), 위 : 건

되자, 숙희가 양고기 묻었던 곳을 파보여 혐의를 벗었다. 이로써 ‘숙희는 해를 막고 의심을 멀리할 줄 알았다’고 평가받았다.

숙향이 신무신의 딸과 혼인하려고 하자, 숙향모 숙희가 역사적으로 여인이 집안이나 나라를 망친 경우를 들면서 ‘미인은 화를 불러 온다’며 반대하였다. 숙향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두려워 혼인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진나라 평공(平公)이 억지로 혼인을 하게 하였다. 후에 신무신의 딸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숙향모 숙희는 ‘이리와 사랑이의 울음으로,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할 아이’라며 다시는 찾아보지 않았다. 『좌전(左傳)』에 실려 있다.

숙희가 숙향의 아우인 양설부(羊舌鮒)를 낳았을 때, 그 모습을 보고는 ‘저 아이는 호랑이 눈에 돼지 입을 하고 술개 어깨에 소의 배를 닮았으니, 골짜기나 구덩이는 채울 정도의 재물을 갖겠지만 욕심은 싫증을 느낄 줄 모르니 반드시 재물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 하고는 다시 보지 않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열녀전』에 실려 있다.

- 77) 한(漢)나라 풍봉세(馮奉世)의 딸. 이름은 원(媛). 원제(元帝) 때 궁으로 들어가 첩여(婕妤)가 되었다가 뒤에 소의로 올려졌다. 그 후, 아들이 중산왕(中山王)에 봉해지면서 중산태후(中山太后)가 되었다. 어느 날, 꿈이 우리에서 뛰어나와 난함(欄檻)을 잡고 여전(御殿)으로 올라가려 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 달아났으나, 풍 소의는 꿈을 막아섰다. 그러자 꿈이 멈칫거렸고, 그 사이에 좌우에 있던 사람들이 꿈을 때려 죽였다. 원제가 ‘누구나 다 놀라고 두려워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꿈을 가로막았느냐’라고 묻자, 풍소의는 ‘맹수는 사람을 만나면 멈춘다는 말을 들었는데, 꿈이 임금에게 갈까 염려되어 몸으로 막았다’고 답하였다. 이에 원제는 감탄하고, 이후로 풍 소의를 사랑하였다. 『한서(漢書)』 <외척전(外戚傳)>에 실려 있다.
- 78) 진(晉)나라 때 도(陶) 땅을 다스렸던 답자(答子)의 아내. 답자가 도 땅을 다스리면서 재물을 많이 축적하자, 아내가 자주 만류하였다. 임기가 끝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자, 집안 식구들이 모두 축하하였다. 그러나 답자의 아내는 ‘남산의 표범이 비 내리는 7일 동안 배가 고파도 사냥을 나가지 않는 이유는 아름다운 털을 상하지 않게 보전하기 위해서’라며 답자의 탐심으로 해가 올 것이라며 떠났다. 그 해, 답자의 집안은 멸망하였다. 『열녀전』에 실려 있다.

시(甄氏), 스 : 지식(知識).

- 漆室女⁷⁹⁾(칠실녀) 칠실여. 나라이 그릇될 줄 알고 근심하너니라. 성 : 고행(高行), 경 : 장손모(臧孫母), 횡 : 현명(賢明), 위 : 당시(唐氏), 스 : 도답처(陶答妻).
- 高行⁸⁰⁾(고행) 고행. 늙은 횡실(行實)을 닮음이 감동(感動)하시니라. 성 : 숙향모(叔向母), 경 : 공강(恭姜), 스 : 풍소의(馮昭儀).
- 孟母⁸¹⁾(맹모) 밍모. 밍자(孟子)를 가라쳐 큰 어진 군자(君子) 되시게 하시니라. 성 : 태임(太任), 경 : 경강(敬姜).
- 候氏⁸²⁾(후씨) 후시. 덩부자(程夫子) 피(母)시니 어진 횡실이 가즈시고 두 착한 아달을 두시다. 성 : 숙향모(叔向母), 경 : 반첩여(班婕妤), 스 : 밍광

79) 노(魯)나라 칠실(漆室) 고을에 살았던 여인. 칠실녀는 ‘노나라 임금의 늙고 태자는 여러 거짓말 잘하는 사람만 날로 늘어난다’며, 노나라에 우환이 생기면 군신과 부자가 모두 부끄러운 일이고, 그 화(禍)는 백성들에게 미치는 것을 걱정하였다. 그 후 3년이 지나자 노나라는 정말로 어려워졌다. 『열녀전』에 실려 있다. 여기에서 칠실지우(漆室之憂)라는 고사성어가 나왔다. 아녀자가 나랏일을 염려하는 것을 이르는 말로, 제 분수(分數)에 맞지도 않는 근심을 이르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80) 양(梁)나라의 과부. 자색과 행동이 뛰어났는데, 양왕(梁王)이 부르자 ‘부인의 도리는 한 번 출가하면 평생을 정절과 신의를 온전히 해야 한다’며 칼로 자신의 코를 잘라버렸다. 왕은 그 절의를 크게 칭송하며 그녀를 높여 ‘고행(高行)’이라고 불렀다. 『열녀전』에 실려 있다.

81) 중국 전국시대 사상이 맹자(孟子)의 어머니.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의 교육을 위하여 세 번(묘 근처에서 시장으로 그리고 학교 근처로) 이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어린 맹자가 학업을 마치고 돌아오자, 맹자의 어머니는 학업 성취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물었다. 맹자가 별 차이가 없다고 하자, 맹자의 어머니는 베틀에서 짜고 있던 베를 칼로 자르면서 ‘학문을 그만 두는 것은 베를 자르는 것과 같다’며 학업을 독려하였다. 『열녀전』에 실려 있다. 여기에서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와 ‘맹모단기(孟母斷機)’라는 고사성어가 유래하였다.

82) 송(宋)나라 정향(程頤)의 아내. 정호(程顥), 정이(程頤)의 어머니. 후씨는 부덕(婦德)이 출중하여 남편을 공경하고 시부모에게는 효도를 다하였으며 치가(治家)에도 법도가 있었다.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작은 것은 나무라고, 큰 것은 남편에게 알려 반드시 고치게 하였다. 인품도 뛰어나 ‘귀천에 차이가 있어도 모두 사람’이라며 하인들에게도 관대하였다. 이로써 정호, 정이가 큰 유학자로 성장시킬 수 있었다. 『덕육고감(德育古鑑)』에 실려 있다. 조선의 많은 어머니들의 모범으로 기록되곤 하였다.

(孟光).

- 緹縈⁸³(제영) 데영. 아버 죄(罪)를 디(代)히라 혼디 나라히 사(赦)히시니라. 성 : 범시(范氏), 경 : 밍광(孟光), 흥 : 진효부(陳孝婦), 위 : 현명(賢明), 스 : 방시(龐氏).
- 陳孝婦⁸⁴(진효부) 진효부. 식어미게 효도(孝道)하미라. 성 : 반첩여(班婕妤), 경 : 후시(候氏), 흥 : 경손모⁸⁵, 위 : 풍소의(馮昭儀), 스 : 당시(唐氏).
- 班婕妤⁸⁶(반첩여), 반첩여. 님금이 사랑치 아니 하셔도 원망(怨望)치 아니 호고 어진 성질(性質) 이 갓더라. 성 : 밍모(孟母), 경 : 숙향모(叔向母), 스 : 후시(候氏).
- 敬姜⁸⁷(경강) 경강. 가장 어지니 공재(孔子) 같아사디 네(禮)를 안다 하시니라. 성 : 태임(太任), 경 : 태임.

83) 한(漢)나라 태창령(太倉令) 순우의(淳于意)의 딸. 순우의가 법을 어겨 체포될 때, 딸들에게 ‘자식을 낳아도 남아들을 낳지 못해 급박한 일을 당해도 도움이 안 된다’고 불평하였다. 그러자 막내딸 제영이 임금에게 ‘자신이 관아의 노비가 되어 아버지의 죄를 갚겠으니 아버지가 스스로 새사람이 될 수 있게 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임금이 감동하여 순우의를 용서하였다. 『사기(史記)』에 실려 있다.

84) 한(漢)나라 사람. 16세에 혼인하여 남편이 수자리를 가자, 혼자서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였다. 친정에서 개가시키려고 하자 ‘남편에게 잘 모시기로 했는데 어찌 다른 집안에 시집가겠느냐?’며 죽으려고 하였다. 이에 친정에서 더 이상 강요하지 못하였다. 28년 봉양하던 시어머니가 죽자, 집과 밭을 팔아 장례를 지냈다. 『열녀전』, 『삼강행실도』에 실려 있다.

85) ‘장손모(臧孫母)’의 오기.

86) 한(漢)나라 성제(成帝)의 후궁. 처음에는 성제의 총애를 받았으나, 조비연(趙飛燕)으로 인하여 내쳐져, 장신궁(長信宮)에서 태후(太后)를 모시면서 여생을 보냈다. 후에 성제가 죽자 반첩여는 그의 무덤을 지켰고, 그 자신도 그곳에 같이 묻혔다. 『한서(漢書)』 <외척전(外戚傳)>에 실려 있다. 자신의 처지를 버려진 가을 부체에 비유한 <원가행(怨歌行)> 등의 작품을 남겼다.

87) 노(魯)나라 계손씨(季孫氏) 목백(穆伯)의 아내이며 문백(文伯)의 어머니. 거(莒)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대기(戴己). 널리 사리(事理)에 통달하였고 예절에 밝았던 경강은 남편이 일찍 죽었으나 홀로 수절하며 지조를 굽히지 않았으며, 아들 문백도 잘 훈육하였다. 문백이 노나라 재상이 되었을 때에도 손에서 방적을 놓지 않았다. 공자가 그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기억해라, 계손씨의 경강은 방종하지 않다’고 말했다. 『열녀전』에 실려 있다.

- 恭姜⁸⁸⁾(공강) 공강. 정절(貞節)이 가장 귀(貴)하더라. 성 : 밍모(孟母), 경 : 숙향모(叔向母), 스 : 고행(高行).
- 臧孫母⁸⁹⁾(장손모) 장손모. 디혜(智慧) 높하 남의 모라난 일 아더니라. 성 : 공강(恭姜), 경 : 고행(高行), 위 : 진효부(陳孝婦), 스 : 칠실녀(漆室女).
- 太任⁹⁰⁾(태임) 태임. 녀편니 중(中) 성인(聖人)이라.

88) 위(衛)나라 세자(世子) 공백(共伯)의 아내. 남편이 일찍 죽자 수절했다. 부모가 개가를 권했으나 이를 듣지 않고 절개를 지키려는 뜻을 담은 <백주(柏舟)>라는 시를 지었다. 『시경(詩經)』 『용풍(邶風)』 <백주2장(柏舟二章)>에 실려 있다.

89) 노(魯)나라 대부 장문중(臧文仲)의 어머니. 문중이 제(齊)나라에 사신(使臣)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잡혔다. 제나라는 노나라를 공격할 생각이었다. 이에 문중은 암호의 글로 편지를 보냈다. 노나라의 조정에서는 아무도 그 글 뜻을 해독하지 못했는데, 문중의 어머니가 ‘아들이 옥에 갇혔으며, 제나라가 노나라를 침범할 것이니 대비하라’는 뜻으로 풀었다. 이에 노나라는 문중 어머니의 말대로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였다. 노나라가 이미 대비하고 있음을 안 제나라는 노나라 정벌을 중지하고 문중을 돌려보냈다. 『열녀전』에 실려 있다.

90)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어머니. 문왕의 아내이며 주나라 1대 왕 무왕(武王)의 어머니인 태사(太姒)와 함께 최고의 여인으로 추앙되었다. 태임은 타고난 성품이 단정하고 성실하여 오직 덕(德)으로 행하였다. 문왕(文王)을 잉태하였을 때는 눈으로 나쁘고 추한 색을 보지 않았고,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았으며, 입으로는 거만한 말을 하지 않았다. 문왕은 주나라의 근간이 되었다. 『열녀전』에 실려 있다.

참고문헌

<규문수지여행지도(閨門須知女行之圖)>.

『肅宗實錄』.

『全州李氏廣平大君派世譜』, 宗會, 1977.

『貞菴集』.

김봉수, 「<승경도(陸卿圖)>를 중심으로 한 초등 역사학습 방안」, 『역사교육연구』 제14호, 한국역사교육학회, 2011, 71~106쪽.

김일근, 「한글판 여행도(女行圖)를 찾았다 -‘규문수지여행지도(閨門須知女行之圖)’ 발굴-」, 『중앙일보』, 1981.10.9.

김일근, 「규문수지여행지도의 공개와 의의」, 『조선여인의 삶과 문화』, 서울역사박물관, 2002, 175~176쪽.

박희진, 「양반의 혼인연령 : 1535-1945」 - 혼서를 중심으로-, 『경제사학』 40권, 경제사학회, 2006, 3~20쪽.

최봉영, 「놀이문화와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한국문화와 한국인』, 사계절, 1998, 28~78쪽.

최상수, 『한국 민속 놀이의 연구』, 성문각, 1988, 245~246쪽.

ABSTRACT

A Study on <KYUMUNSUJIYEHOHAENGJIDO>

Lim, Chi-kyun

<KYUMUNSUJIYEHOHAENGJIDO(閨門須知女行之圖)> is a playbook that was passed by Queen Inhyeon to her beloved sister, Mrs. Min, when she was dethroned, became an ordinary citizen, and stayed at a private residence. Unlike <SEUNGKYEONGDO(陞卿圖)>, which is a playbook mainly about males under the theme of public positions, the theme of <KYUMUNSUJIYEHOHAENGJIDO> is based on the deeds of women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Mrs. Min was the one who married Lee Janghwi (李長輝), and the version of <KYUMUNSUJIYEHOHAENGJIDO> still in existence is the one copied by a great-great-grandchild, Lee Ok(李鈺) of Mrs. Min.

<KYUMUNSUJIYEHOHAENGJIDO> is roughly constructed with four parts: the first part is for the farthest line from the playboard, which is filled with evil women and evil deeds. The second part is for the second farthest line, which describes appropriate behaviors for women. The third is the third farthest line, which states the names and deeds of 32 outstanding women in 7 columns x 5 rows. The fourth part is called 'TAEIM(太任)', locating at the highest line. It is where this play ends and it is with a description, 'holy married women'.

<KYUMUNSUJIYEHOHAENGJIDO> is started with 'SA(肆), WI(僞), JAE(才), JAENG(行), GYEONG(敬), and SUNG(誠), at the center of the bottom line. From this, it is possible to assume that this game is supposed to be played with a dice (YUNMOK 輪木). On each space of the board, the place to go is described. While playing this game, players of this game can learn about appropriate and inappropriate deeds for women as well as women worthy of respect and who are not.

Key Words <KYUMUNSUIYEOHAENGJIDO>, Queen Inhyeon, Mrs. Min, playbook,
<SEUNGKYEONGDO>, Lee Ok

논문투고일 : 2019.04.22
심사완료일 : 2019.05.13
게재확정일 : 2019.05.20